차 례

제 1 과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시던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학원에 새 원장선생님이 왔습니다.

이날 학원 부원장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새로 온 원장선생님을 대하는데서 주의할 문제들을 알려주고나서 이제부터 원장선생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학생들은 호실에 모여 새로 온 원장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호실에 들어서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없이 웃고 떠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은 새로 온 원장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한데 대하여 생각되는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학생들은 원장선생님이 나이도 많기때문에 또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면 안되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학원을 세워주실 때 벌써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라고 하시면서 학원학생들에게

친아버지도 줄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시였다. 때문에 학원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장군님을 아버지장군님이라고 부르고있다.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혁명가유자녀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를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바친 혁명렬사들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모두를 한명한명 찾아내시여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푼전을 아껴가던 그 어려운 때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제일 좋은 천으로 학원복을 만들어주시고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학원학생들에게만은 흰쌀밥을 먹여야 한다시며 재령에서 나는 좋은 쌀과 북청사과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유자녀모두를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김일성**대원수님은 혁명가유자녀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동무들은 학원에서 근심걱정없이 공부하는것이 마치도 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원선생님들의 덕인줄 알고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장군님께서처럼 혁명가유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키워줄수 없다. 학원학생들의 아버지를 장군님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진정 장군님은 학원학생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장군님께서 세워주신 학원은 혁명가유자녀들의 행복한 집이다.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르며 말씀을 명심하겠다고 힘있게 대답올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생들모두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제 2 과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부모잃은 유자녀들을 위하여 안전한 곳에 새 교사까지 지어주시고 학원학생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그러나 나쁜 놈들의 영향으로 그때 학원학생들은 그토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는 모르면서도 부피두꺼운 다른 나라 책을 끼고다니면서 멋을 부렸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다른 나라의 노래, 춤을 추어도 다른 나라의 춤을 추기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것을 장한것처럼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그릇된 현상을 헤아려보시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깊이 마음쓰시였습니다.

학생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족점을 바로잡자면 그들 모두를 조선의 참된 아들딸로 준비시켜야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시였습니다.

그러던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분단총회에 참가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될데 대한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였습니다.

그리신 다음 이미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있던 한가지 구호를 제기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열두살의 어리신 나이에 제 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고 중국땅에서 고향 만경대까지의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올해는 바로 아버지장군님께서 내 나라 조선을 배우기 위하여 천리길을 걸으신지 서른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해를 맞으며 동무들에게 30년전 아버지장군님께서 지니셨던 그 크나큰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선의 참된 아들딸로 억세게 준비하기 위하여《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추켜들고 힘차게 나아가자는것을 호소합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 구호에는 우리모두가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고 조선을 위하여 써먹을수 있는 풍부한 산지식을 배워 나라의 참된 역군으로 되자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구호의 요구대로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문화에 대하여 잘 알며 옳바른 도덕품성과 튼튼한 체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구호를 받아안은 학원의 불밝은 창가마다에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배우려는 학생들의 랑랑한 글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 우리 춤으로 온 학원이 흥성거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원학생들에게 조선을 위하여 배워야 한다는 깊은 뜻을 심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구호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오늘도 온 나라 학생들이 추켜든 심장의 구호로 되고있습니다.

제 3 과
작은 수첩

어느날 오후 복습시간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국어며 산수숙제를 하시다가 자그마한 수첩에 무엇인가 또박또박 적어넣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옆자리에 앉은 학생은 그 수첩에 마음이 끌리였습니다.

(무슨 수첩일가? 수첩에 무엇을 써넣으실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 학생은 **김정일**대원수님께 그것은 무슨 수첩인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이 수첩은 내가 참고할것을 적어넣는 수첩이다, 나는 이 수첩을 늘 가지고다니면서 외우기도 하고 산수문제풀이도 해보군 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호기심이 부쩍 동한 그 학생은 **김정일**대원수님께 그 수첩을 좀 보여주실수 없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뭐 별로 볼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니 그의 앞으로 수첩을 밀어놓으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얼른 수첩을 받아들고 한장한장 번져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첩의 첫장에는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라는 구호가 정자로 곱게 씌여있고 그밑에는 《1952년 11월 15일》이라는 날자가 적혀있었습니다.

학생의 머리속에는 그 구호와 날자가 무슨 련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대원수님께 1952년 11월 15일이 무슨 날인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날이 아버지장군님께서 자신께 편지를 보내주신 날이라고 하시면서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라는 구호도 바로 아버지장군님께서 공부를 잘하라고 써보내주신 구호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뜨거운 마음을 안고 수첩의 다음장을 번지였습니다.

수첩의 다음장부터는 흥미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씌여있었습니다. 시원스럽고 큼직큼직한 글씨로 쓴 시구절, 뜻풀이, 력사상식, 수학공식, 우리 나라 강과 산, 동식물의 이름 등 없는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단

어와 문장에는 밑줄이 그어져있는가 하면 큼직한 물음표가 그려져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학생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늘 그 작은 수첩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자주 꺼내보군 하시였던것입니다.

영화구경을 가시여서도 짬시간에 그 수첩을 펼쳐드시고 무엇인가 조용조용 외우기도 하시고 산수문제를 풀어보기도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작은 수첩, 그것은 비록 소박하고 크지 않아도 **김일성**대원수님의 뜻대로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 내 나라를 빛내일 산지식을 가득 담은 참으로 크고 큰 보물수첩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수첩을 늘 가지고다니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짬시간을 아껴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제 4 과
함박눈 내리는 날에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날이였습니다. 눈은 산과 들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다고들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공부하시는 학급에서는 이날 분단모임을 가지게 되여있었습니다.

교실에 모인 동무들은 모두 함박눈이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고있었습니다. 전날에 급히 보실 일이 있어 외출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혹시 오시지 않나해서였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열렬히 토론하시면서 동무들을 일깨워주군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도 동무들은 대원수님께서 어서 빨리 오시기를 바랐던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순간 동무들은 앞을 가려볼수 없게 눈이 쏟아져내리는 밖을 내다보며 자신들을 나무랐습니다.

(저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아마 못 오실거야…)

분단에서는 **김정일**대원수님께 토의된 내용을 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문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뜻밖에도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깨와 모자에 하얗게 쌓인 눈을 터시며 교실에 들어서시였습니다.

(아니？…)

분단동무들은 너무도 반가와 막 달려가 **김정일**대원수님을 에워싸며 눈을 털어드렸습니다.

동무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임을 시작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임에 늦을가봐 급히 서두르기는 했지만 눈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혼이 났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눈이 많이 내려 다니기도 힘든데 모임에 좀 늦어지면 뭐라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음어린 눈길로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소년단원이 분단모임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니, 소년단선서를 하고 조직에 든 이상 언제 어디서나 조직규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동무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 분단총회도 아닌데 눈이 멎은 다음에 오셔도 될걸 그랬다고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환경에 따라 조직규률을 어겨서는 안된다. 물론 소년단생활을 하는 과정에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 부닥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조직규률을 어기거나 에누리하려

고 해서는 안된다.

소년단조직에서 조직되는 사업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제때에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며 분단동무들은 소년단조직생활에 열심히 참가하리라 마음다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조직의 규률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제 5 과
고쳐진 우화

어느날 저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재미나는 오락회를 하고계시였습니다.

오락회가 끝나자 한 학생이 승냥이와 학에 대한 우화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우화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놓고 게걸스레 먹어대던 승냥이가 목구멍에 짐승뼈가 걸려 다죽게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목을 싸쥐고 데굴데굴 굴다가는 캑캑 기침도 하면서 승냥이는 모지름을 썼지만 뼈는 더 깊이 목구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쿠, 나 죽는다!》

승냥이는 비명을 지르며 구원을 청했지만 어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나무우에 날아와앉는 학을 본 승냥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발 목에 걸린 뼈를 꺼내달라고 대가리를 갑삭거리며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에 걸린 뼈를 꺼내주면 단단히 은혜를 갚겠다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하늘만 날아다니면서 승냥이의 본성을 잘 몰랐던 학은 그를 불쌍히 여겨 긴 부리로 승냥이의 목에 걸린 뼈를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은혜를 갚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뻔뻔스러운 승냥이는 학을 노려보며 잡아먹지 않는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자기를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학생의 이야기가 끝나자 일부 학생들이 그래도 그 승냥이가 은혜를 갚을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용히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다가 자신께서도 이 우화에 대하여 알고있는데 과연 승냥이가 은혜를 갚을줄 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승냥이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악하고 잔인한 동물이다, 그런데 승냥이가 목에 뼈가

걸려 다 죽게 된것을 학이 구원하여주었다고 하여 그 은혜를 알아줄리 없다, 승냥이의 본성은 절대로 양으로 변하지 않는다, 승냥이는 자기를 구원해준 학이라고 하여도 배가 고프면 잡아먹으려고 할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 우화에는 부족점이 있다, 그것은 승냥이를 선량한 승냥이로 만들어놓은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우화도 다른 옛이야기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교훈적인것을 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 우화를 통하여 승냥이란 악한 짐승이며 도와줄 필요도 없고 또 승냥이에게서 그 어떤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알게 해야 한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우리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승냥이라고 부른다고,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근로인민들을 억압착취하여 살아가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승냥이와 같은 미제는 때려잡아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승냥이 미제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이 우화

에 대하여 말할 때 승냥이는 자기를 구원해준 학을 잡아먹겠다고 하고 학은 뼈를 꺼내준 자기를 후회하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것으로 이야기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후부터 학생들은 이 우화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고쳐주신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생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승냥이 미제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제 6 과
저도 학원학생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원기숙사에서 생활하시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머리를 깎으시려고 리발소에 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순번을 기다리기 위하여 의자에 앉으시였습니다.

이때 위대한 대원수님을 알아본 리발사아저씨가 어서 머리를 깎자고 하였습니다. 학생들도 먼저 머리를 깎으시라고 한결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없다고, 차례대로

깎겠다고 하시면서 저도 똑같은 학생인데 차례를 어기면 되겠습니까라고 웃으며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먼저 와있던 학생의 등을 떠밀어 리발실에 들여보내시고 조용히 의자에 앉으시여 신문을 펼쳐드시였습니다.

차례가 되시여 리발의자에 앉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리발사아저씨에게 다른 학생들과 꼭같이 머리를 짧게 깎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기다림칸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자기들과 꼭같이 머리를 짧게 깎으신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들이였던것입니다.

학생들보다 더 놀란것은 리발사아저씨였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놀라 서있던 리발사아저씨는 댁에서 승인이 있었는가고 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제 머리를 깎는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고 하시면서 어서 머리를 깎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리발사아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급히 달려가서 학원의 한 선생님을 데리고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김정일**대원수님께 머리를 짧게 깎으시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자기하고 함께 가셨다가 후에 와서 깎으시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학원학생입니다. 학원학생들과 꼭같이 하지 않을바에야 무엇때문에 학원에 들어왔겠습니까.

저도 학원학생이기때문에 학원규률에 복종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청소를 하면 저도 그들과 같이 청소를 하고 학생들이 머리를 짧게 깎으면 저도 짧게 깎아야 하며 무엇이든지 학생들과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선생님은 크게 감동되여 리발사아저씨에게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머리를 깎아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머리를 깎고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거울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쳐보고나시여 이렇게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머리를 짧게 깎으니 참 좋다고 하시며 리발실을 나서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남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학원에서 정한 규률대로 생활하시였습니다.

제 7 과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원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잘 알도록하기 위해 깊이 마음쓰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 학교들에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배우는 공부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원소년단지도원선생님을 찾아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는 소년단지도원선생님에게 한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다고 하시며 책 한권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이였습니다.

정중히 책을 받아든 지도원선생님은 크나큰 흥분속에 한장한장 책장을 번지였습니다.

글줄마다에 색연필로 밑줄이 그어져있는 책에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여러번 읽으신 흔적이 갈피갈피에 어려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 책장을 다 번져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제가 최고사령부에 있을 때 읽은 《**김일성**장군의 략전》입니다. 소년단원들속에서 이 책을 연구학습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은 감동되여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기뻐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의 발기를 적극 지지해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분단동무들이 략전을 돌려가며 읽어보도록 하시고 략전연구소조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후인 주체42(1953)년 2월 10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조직하는 모임을 가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임에서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김일성**장군의 략전》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모두가 아버지장군님이 참말로 위대한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군님께 충직한 아들딸이 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모두를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조선혁명의 기둥으로 준비시키는데 략전연구소조의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분단의 전체 동무들이 소조에 망라되게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세우신 연구소조의 활동계획도 발표하시였습니다.

그 계획에는 독보, 해설모임, 연구토론회를 비롯하여 상봉모임, 우등불모임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운영될 소조활동을 그려보며 학생들이 기쁨에 넘쳐 설레이는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모두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 소조원이 된 긍지를 안고 아버지장군님의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이 떠나갈듯 박수를 치며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무어진 첫날부터 활발히 운영되였습니다.

그후 략전연구소조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공부하시는 학급뿐아니라 학원의 모든 학급들에 무어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무으시여 학생들을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습니다.

제 8 과
쏠라닥거리는 쥐새끼들을 용서치 말아야 한다

주체42(1953)년 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로동신문》을 펼쳐드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눈가에는 전에없이 근엄한 빛이 어

리였습니다. 한동안 신문을 읽으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분하신 어조로 종파놈들이 감히 당을 반대하다니라고 하시며 두주먹을 꽉 틀어잡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에게 신문을 보라고 주시였습니다.

신문에는 종파놈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글이 실려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난 학생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아니, 감히 그런 못된짓을 하다니?!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놈들이 폭로되지 않고 당안에 계속 숨어있으면 어떻게 될번 하였는가고 격분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때 문득 한 학생이 종파놈들이란 어떤 놈들인가고 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종파놈들이란 쉽게 말하면 쥐새끼같은 놈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쥐새끼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서는 쏠라닥거리면서 대들보를 쏠고 고간에 있는 쌀을 훔쳐먹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파분자란 원수님을 반대하여 패를 지어 뒤에서 꿍꿍이질을 하는 놈들이다. 이놈들은 앞에서는 원수님의 말씀을 들은척 하고 뒤에서는 원수님을 반대하여 저희들끼리 쏠라닥거린다.

학생들은 그놈들이 앞에 있으면 당장 쳐죽일듯이 모두 두주먹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놈들을 당장 용광로에 처넣자느니, 쥐새끼 잡듯 때려잡자느니 하면서 격분을 참지 못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없는데서 야금야금 대들보를 갉아먹고 곡식을 훔쳐내는 얄미운 쥐새끼들, 앞에서는 당을 받드는척 하고 뒤에서는 쏠라닥거리며 나쁜짓만 골라하는 그야말로 쥐새끼같이 교활하고 음흉한 놈들이 바로 종파놈들이였습니다.

격분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쥐새끼같은 그놈들을 모조리 잡아낼수 있을가 하고 안타까와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학생들을 미더운 눈길로 둘러보시며 우리는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아버지장군님의 사상과 맞지 않는것은 제때에 밝혀내고 투쟁해야 한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제아무리 간교하게 날뛰여도 아버지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당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종파놈들과는 끝까지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종파놈들이 어떤 놈들이고 그놈들을 모조리 잡아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학생들에게 깊이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 9 과
하늘도 바다도 땅도 지키는 대장이 되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2월 8일이 가까와오던 어느날이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이날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준비로 들끓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급동무들에게 예술소조공연준비도 잘하고 공화국영웅사진첩도 만들자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영웅사진첩에 영웅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영웅적으로 잘 싸웠는가 하는 글도 써넣고 그림도 그려넣어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친히 모아두시였던 영웅들의 사진도 가져다주시고 그들이 잘 싸운 내용의 글도 써주시였습니다.

얼마후 훌륭하게 완성된 사진첩을 놓고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한장을 펼치니 땅크병영웅, 또 한장을 펼치니 비행사영웅, 해군영웅…

사진첩을 펼치시고 학생들에게 영웅들의 전투위훈

을 자세히 가르쳐주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의 사진을 보시며 영웅에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은 18살의 청춘을 아버지장군님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바친 참 훌륭한 조선의 아들이라고, 그는 해방전에 가난하게 살다가 해방후에야 아버지장군님의 품속에서 행복을 찾았기때문에 원쑤를 미워할줄 알았고 조국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도 앞으로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여 아버지장군님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영웅들처럼 살아갈 자기들의 희망과 포부를 털어놓았습니다.

누구는 비행사영웅, 누구는 정찰병영웅, 또 누구는 땅크병영웅 …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계시였습니다.

곁에서 위대한 대원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대원수님의 희망은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다가 선생님에게 나는 커서 하늘도 지키고 바다도 지키고 땅도 지키는 대장이 되여 아버지장군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선생님과 학생들은 《야!》 하고 환성을 올리

며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리신 나이에 벌써 하늘도 바다도 땅도 지키는 대장이 되실 굳센 마음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10 과
나는 그 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분단별로 2월 8일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예술공연준비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급의 한 학생을 데리고 연극련습장으로 가고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실옆을 지나실 때 교실안에서 시를 읊는 한 녀학생의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녀학생이 감정을 잡아 시를 읊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습니다.

녀학생이 읊는 시의 내용은 사랑하는 딸을 전선에 내보낸 어머니가 딸의 소식을 몰라 《너 어느 곳에 있느냐》고 하면서 애를 태우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 녀학생이 읊는 시를 다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함께 가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

씀하시였습니다.

나는 그 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 시에는 어머니가 딸을 전선에 내보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애타게 가슴을 쥐여뜯으며 울고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 어디 그런 어머니가 있는가.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나라를 먹겠다고 덤벼드는 미국놈들을 쳐물리치라고 아들딸들을 전선에 내보냈다.

전선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을 내보내고 우리 어머니들은 미국놈들을 모조리 때려부시고 영웅이 되여 돌아오라고 당부하고있지 저 시에서처럼 가슴이 종이장처럼 얇아지면서 애를 태우지 않는다.

싸우는 조선의 어머니들은 그런 어머니가 아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시에 나오는 어머니는 귀만 기울이면 얼음장 터지는 소리만 들린다고 하면서 전선에 나간 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를 먹겠다고 덤벼드는 미제승냥이놈들을 쳐물리치기 전에 전선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것인가, 저 시를 들으면 들을수록 비감에 잠기게 하는데 좋지 않다, 지난 설날 오락회때에도 누가 저 시를 읊었는데 그때도 명랑하고 즐거운 기분에 있던 사람들이 금시 침울해지고 슬퍼만 하였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저 시를 2월 8일 기념공연에 내놓고 읊으려고 한다고 격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더는 참을수가 없으시여 그

길로 선생님을 찾아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 저는 학생들에게 양기를 잃게 하고 슬픈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를 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두산》과 같은 좋은 시들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런 시를 읊겠습니까, 저는 이번 2월 8일에 그 시를 읊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시가 왜 나쁜 시인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까밝히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지나서였습니다. 그 시를 쓴 시인이라는 놈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이며 미제의 간첩이라는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나쁜 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씌여졌다는것도 밝혀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한편의 시를 들으시고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퍼뜨리려는 나쁜 사상을 날날이 까밝혀내시였습니다.

제 11 과
동시 《초상화》

주체42(1953)년 2월 7일 학원학생들은 더없이 기쁜 소식을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시였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원수칭호를 받으시였다!》

《**김일성**원수님 만세!》

학원은 크나큰 감격으로 끓어번지였습니다.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삼가 올리며 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동무들에게 어제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장군님께서 원수복을 입고 찍으신 사진과 편지를 보내주셨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흰종이에 정히 싼 아버지장군님의 사진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원수복을 입으신 아버지장군님의 사진을 보는 순간 동무들은 일제히 《야!》 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장군님의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김정일**대원수님의 곁에서 떠날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한 동무가 **김정일**대원수님께 원수칭호란 어떤 칭호인가고 물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끝없는 기쁨이 넘치는 눈길로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원수칭호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제정한 군사칭호에서 제일 높은 칭호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영광이며 자랑으로 됩니다.

아마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은 이 자랑과 긍지를 안고 더욱더 사기충천하여 원쑤놈들을 쳐부실것입니다.

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것입니다.

그후 3월 어느날 소학반 4학년에서는 국어시간에 글짓기를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연필을 드신채 교실에 모셔진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만 우러러보고계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영상을 뜨거운 마음으로 우러르시며 《초상화》라는 제목으로 동시를 지으시였습니다.

다음번 글짓기시간이 되자 담임선생님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글을 잘 지으시였다고 하면서 동시 《초상화》를 학생들에게 읊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깊은 감동속에 동시를 들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을 그리며 받드는 자기들모두의 마음이 너무도 가슴가득 안겨와 막 외우고싶었습니다.

모두 다섯개 련으로 되여있는 동시 《초상화》에는 하루에도 몇번이고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아버지장군님을 그리워하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

운 마음이 새겨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열병광장의 주석단에 계시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러르는 **김정일**대원수님의 확신에 넘친 마음도 씌여져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한편의 동시를 지어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실 마음을 담아 지으시였습니다.

제 12 과
웃어른들을 존경하시여

학원이 자리잡은 북부지방은 2월 중순이 되여오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면 학생들은 보이라실에 가서 더운물을 가져다가 아침청소를 하군 하였습니다.

이날도 남먼저 교실에 나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학생과 함께 더운물을 가지러 보이라실에 가시였습니다.

보이라실에 이르니 방금 석탄재를 털었는지 안에는 재가루가 떠돌고 열관리공은 출입문가의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식하고있었습니다.

함께 간 학생은 한손으로 입과 코를 막으며 보이라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학생의 이런 행동을 가볍

게 막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열관리공에게 다가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시였습니다.

뜻밖에 위대한 대원수님의 인사를 받은 열관리공은 몹시 거북해하며 어떻게 이런데까지 다 오시였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더운물이 필요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열관리공은 자기가 더운물을 받아드리겠다고 하면서 바께쯔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받겠다고 하시면서 보이라실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당황해난 열관리공은 여기는 먼지도 많고 어지러운 곳이여서 들어가실데가 못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열관리공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아저씨는 이런데서 하루종일 일하시는데 저라고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일없습니다, 어서 앉아 쉬십시오라고 친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한없이 겸손하신 그 풍모에 깊이 감동된 열관리공은 뜨거움을 삼키며 혹시 방이 춥지 않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저씨가 이처럼 수고해주시는데 춥기는 왜 춥겠는가고 하시며 우리는 매일 뜨뜻한 방에서 추운줄을 모르며 공부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더운물을 받으신 후 고맙다고 깍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가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열관리공의 두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더운물바께쯔를 맞들고 교실로 오시면서 그 학생에게 보이라실에 가면 아저씨에게 인사도 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 더운물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보이라실에 먼지가 있다고 해서 손으로 코와 입을 막으면서 들어가면 안된다고 따뜻이 타일러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치며 머리를 숙이는 그 학생에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아저씨와 같이 어렵고 힘든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여야 한다.

그 학생은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힘들게 일하는 웃어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시였습니다.

제 13 과
따뜻이 타이르고 이끌어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한호실에서 생활한 학생들은 소년반생활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때 호실별로 무어진 소년반에서는 소년반일지를 매일 쓰게 되여있었습니다.

반일지에는 소년반의 하루사업계획과 그 집행정형 그리고 반원들의 하루생활에서 나타난 우점과 결함을 종합하여 적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소년반장사업을 하던 학생은 그것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반일지를 정상적으로 쓰지 않았으며 쓰는 경우에도 마지못해 써넣군 하여 여러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3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는 반일지를 잘 거두지도 않고 제대로 정리하지도 않아 또 비판을 받게 되였습니다.

선생님은 주간사업을 총화하면서 그 학생을 학생들앞에 내세워놓고 엄격히 비판한 다음 다음주까지 깨끗이 정리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총화가 끝난 후 호실에 돌아온 그는 좀처럼 비판받은것이 내려가지 않아 불평을 부리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얼마후 호실에 들어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의 뒤틀린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아까 선생님이 비판했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비판이야 미워서 하는것도 아니고 잘못된것을 고치도록 하자고 하는것인데 이렇게 부어가지고있으면 되니, 앞으로 고치면 된다라고 조용히 타이르시였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에 그는 더 누워있을수 없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꼭 잡으시고 반장인 동무가 비판을 좀 받았다고 그러면 반사업은 어떻게 되겠니, 대담하게 고쳐야 한다, 우리 힘을 합쳐 잘 해보자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제대로 정리도 하지 않고 마구 건사하여 어지러워진 그의 반일지를 보시고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습니다.

이윽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가지고계시던 새 학습장 한권을 그에게 주시면서 소년반사업을 부담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그것은 조직의 분공이라고, 이 조직의 분공은 곧 동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소년반성원들이 동무를 믿고 반장으로 선거하였는데 그것을 저버리면 되겠니.

반장으로서 반원들의 믿음에 소년반사업을 잘하는것으로 보답해야 한다.

그리고 소년단조직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친히 책장을 번지시며 반사업계획양식을 그리는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반사업계획을 동무들과 토론하여 세울데 대하여서와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고 총화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 소년반사업도 잘하고 반일지도 매일매일 잘 쓰리라 굳게 속다짐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분단열성자들이 조직과 집단의 믿음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14 과
노래 하나 불러도 춤을 한번 추어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어려운 속에서도 학생들이 마음껏 노래부르며 씩씩하게 자라라고 학원에 새 피아노를 보내주시였습니다.

학원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크나큰 기쁨에 넘쳐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기쁨의 미소를 짓고계시였습니다.

잠시후 음악선생님이 피아노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피아노를 만져보며 건반을 눌러보던 선생님은 다른 나라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이 연주하는것을 주의깊게 지켜보시다가 우리 나라에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좋은 노래들이 많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불러도 우리 나라의 노래,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있게 연주하였습니다.

피아노의 맑은 선률을 타고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졌습니다.

음악선생님이 피아노연주를 마치였을 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이 피아노로 제일먼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우리 원아들이 부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한 선생님은 강당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에 내놓을 다른 나라 무용 《뽈란까》를 지도하고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련습하는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우리 조선사람들은

그런 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뽈랸까》와 같은 외국춤은 그 나라 사람들의 감정에는 맞겠지만 조선사람들의 감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는 우리의 춤을 춰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는 《단심줄》, 《목동과 처녀》와 같은 좋은 춤들이 있다고, 조선사람은 조선의 것을 잘 알고 사랑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선생님은 《뽈랸까》대신 우리 나라 춤인 《단심줄》과 《목동과 처녀》를 학생들에게 배워주었습니다.

그리하여 4.15경축공연에 출연한 무용 《단심줄》과 《목동과 처녀》는 관람자들의 커다란 절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하나 부르고 춤을 한번 추어도 우리의 노래, 우리의 춤을 추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15 과
충정의 마음어린 4월호 벽보

4월의 봄명절을 앞두고 학원에서는 특색있는 직관선전물들이 성의껏 만들어지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때 4월호 벽보발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학생들에게 4월은 아버지장군님의 탄생일을 맞는 뜻깊은 달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승리가 있고 우리 조국의 미래가 있다고 하시면서 4월호 벽보를 특별히 잘해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벽보의 주화문제가 토의되였습니다. 한 학생이 일어나 4월호 벽보에는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그밑에 꽃으로 장식하자고 제기하였습니다.

동무들은 너도나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자는것은 자신께서도 찬성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꽃으로 장식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할것이 아니라 뜻이 깊게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

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뜻깊게 장식할수 있을가?)

학생들은 생각을 모으며 두눈을 깜박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김일성**원수님은 인민의 태양이라는 뜻에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금빛테두리로 둥근 원을 그리고 원수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신 다음 그 아래부분을 월계수로 싸서주자는것입니다.

그리고 그아래에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초가집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만경대를 그리고 원수님께서 어린시절에 잡아보시려던 무지개와 그것을 잡으러 오르시였던 푸르싱싱한 소나무를 그립시다.

그러면 참으로 뜻깊은 주화로 될것입니다.

순간 학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높은 충실성과 뛰여난 미술적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야!》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계속하시여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화아래에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인사글을 주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그것이 좋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벽보내용을 어떻게 쓰겠는가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벽보원고를 쓸 동무들을 선정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한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일어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벽보에 실릴 시를 써주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동무들의 제의를 편집위원회의 분공으로 알고 시를 쓰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날부터 학생들은 서로서로의 지혜를 모아 벽보발간사업을 다그쳐나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보살펴주시면서 3월말에는 동시 《우리의 수령》도 훌륭하게 지어오시였습니다.

드디여 벽보가 완성되였습니다.

주화도 보기 좋았지만 벽보내용도 특색있게 되였습니다.

더우기 벽보가운데에 실린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동시 《우리의 수령》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4월호 벽보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실 학생들모두의 마음이 담긴 벽보로 되도록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16 과
제일 큰 명절

뜻깊은 4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제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41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분단총회가 열렸습니다.

보고와 토론이 끝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작년 4월에 아버지장군님 탄생 40돐을 맞으며 많은것을 생각하였다고, 아버지장군님의 탄생일을 나라가 해방된 날이나 5.1절과 같은 날보다 더 크게 쇠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실 아버지장군님을 떠나서 우리 조선사람들이 다른 명절들을 즐겁고 재미나게 쇨수 있겠는가고, 이렇게 놓고볼 때 아버지장군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응당 크게 쇠야 하지 않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물론 지난 기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생일을 쇠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어머님과 항일투사들이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이날을 뜻깊게 기념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생일은 무슨 생일인가고 하시며 생일상을 받지 않

으셨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조용히 머리를 들어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렀습니다. 너무도 어리신 나이에 어머님을 잃고 어머님의 뜻대로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그 뜨거운 마음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던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고 앞으로 조국의 륭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래일도 약속되여있다,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장군님의 탄생일을 가장 큰 명절로 뜻깊게 쇠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진행할 예술공연이나 체육대회 같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학원은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으로 차넘쳤으며 그 준비사업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였습니다.

드디여 기다리고기다리던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김일성**대원수님 초상화앞에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습니다.

이윽고 아침식사를 한 학생들은 기념보고회를 끝내고 즐거운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친히 쓰시고 주인공역을 훌륭히 수행하신 연극 《패전장군의 말로》는 학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크나큰 감동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이어 성대한 체육대회가 진행되였습니다.

학원학생들은 이날에 진행된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여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이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민이 4월 15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17 과
기념사진 찍던 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41돐을 맞는 뜻깊은 날이였습니다.

강당에서 기념보고회를 진행하고 예술소조공연도 관람한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달려나와 축구경기를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동무들과 함께 경기에 참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이 한창 신이 나서 뽈을 차고있는데 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학생들을 모이게 한 선생님은 얼굴에 기쁨을 가득 담고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원아들이 보고싶다고 사진사를 보내주시였다고 격동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기뻐《야!》하고 환성을 올리며 서로 부둥켜안고 빙빙 돌아갔습니다.

서로서로 옷차림도 보아주며 사진을 찍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면서 맨 앞줄 가운데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굳이 사양하며 한쪽 옆으로 가시여 동무들속에 앉으시였습니다.

선생님과 동무들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여기가 더 좋다고 하시면서 끝내 자리를 옮기지 않으시였습니다.

할수없이 그대로 집체사진을 찍은 선생님과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 독사진을 찍으실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엇때문에 나만 독사진을 찍겠는가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나혼자 찍은 사진보다 동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시면 더 기뻐하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소년단열성자동무들과 함께 한번 더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습니다.

기쁨에 넘친 열성자들은 이번에는 **김정일**대원수님을 꼭 가운데 모시려고 량옆으로 둘러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저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느라 덤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학생은 그만 **김정일**대원수님의 팔을 조금 가리우고 서게 되였습니다. 뒤늦게야 이것을 느낀 그 학생은 황급히 뒤로 물러서려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정히 웃으시며 그를 더 앞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학생의 삐뚤어진 소년단열성자표식까지 바로잡아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그토록 희망하던대로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사진을 찍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보다 동무들을 더 내세워주시는 한없이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18 과
바깥등밑에서

4월 어느날 국어시간이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신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4장을 외워올데 대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학생들은 학원계획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재미있는 영화구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밀려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냥 잠자리에 들고말았습니다.

다음날 국어시간이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숙제검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를 외우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녀학생 몇명이 일어서긴 했으나 그들도 시의 두개 절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자신있는 학생이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서로 곁눈질만 하였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자신께서 한번 읊어보겠다고 하시였습니다.

물을 뿌린듯 조용한 교실안에 위대한 대원수님의 맑은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의 내용을 어찌나 생동하게 살려 읊으시는지 학생들은 시의 내용에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시를 다 읊으시자 담임선생님은 감동에 젖어 시를 대단히 잘 읊으시였다고 못내 기뻐하였습니다.

국어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학급동무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르며 의문을 풀길없어하였습니다. 분명 대원수님께서도 어제 오후 자기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셨고 영화관람도 하시였는데 언제 그 긴 시를 다 외우셨는지 알수 없었던것입니다.

그 사연을 알고있는 학생은 오직 한명뿐이였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의 호실을 돌아보던 선생님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잠자리가 비여있는것을 보고 대원수님의 옆자리에서 자던 학생을 깨웠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김정일**대원수님을 찾으려고 호실을 나섰습니다. 학원안을 한바퀴 돌아 운동장으로 나오던 선생님과 그 학생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바깥등밑을 천천히 오가시며 무엇인가 외우고계시였기때문이였습니다.

《왜 여기 추운데 나와 공부하세요? 그러다 감기라도 들면…》

선생님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아직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 저도 인차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시를 외우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숙제로 내준 시를 다 외우고 서야 잠자리에 드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날 숙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로 꼭꼭 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제 19 과
뜻깊은 생일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어려운 속에서도 학원원아들의 생일상을 푸짐히 차려주도록 따뜻한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어느날 선생님은 5월에 생일을 맞는 학생들을 알아보고있었습니다.

교실뒤쪽에서 한 학생이 일어나 자기도 생일이 5월이라고 하면서 말끝을 얼버무렸습니다.

선생님은 그의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하여 학생의 학적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학생의 생일이 5월이 아니라 9월로 적혀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웃음보를 터쳤습니다.

선생님도 어이가 없어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학생은 너무 부끄러워 어쩔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이때 누군가 그의 손을 다정히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밖에 나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왜 거짓말을 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뒤머리를 벅벅 긁으며 사실은 학원에서 하루빨리 생일을 쇠고싶어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야지 거짓말을 하니까 동무들의 놀림을 받게 되지 않는가고 따뜻이 타이르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실 자기는 생일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원래 남조선에서 너무도 어린 나이에 미국놈들에게 부모를 빼앗기고 거지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 어디에서 태여났는지도 모르고 더우기 생일이란 말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학원에 입학하여 생일이 언제인가고 묻기에 생각나는대로 9월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학생들이 생일상을 받고 기뻐하는것을 보니 자기도 하루빨리 생일상을 받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도 5월이라고 하였던것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응

그렇게 되였구나 하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과 동무들앞에서 거짓말을 한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격하신 음성으로 이것은 동무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것은 미국놈들과 그 주구놈들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에게 그 학생이 왜 생일을 5월이라고 이야기하였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학생의 생일을 정해주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 학생의 생일을 언제로 하면 좋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0월 12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습니다.

학급동무들은 열렬한 박수로 생일을 새로 정한 그 학생을 축하해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쁘신 마음으로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10월 12일은 아버지원수님께서 학원을 세워주신 날이다. 나는 그날을 우리 학원학생들이 두번다시 태여난 날로 생각한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그 학생은 뜻깊

은 생일을 받아안고 앞날의 주인공으로 더욱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원시절 부모 잃은 동무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시였습니다.

제 20 과
제일 위력한 무기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모습을 펼치듯 온갖 꽃 피여나던 5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교실에서 전쟁에서 원자탄의 위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었습니다.

동무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원자탄이 위력한것만은 사실이나 별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한 학생에게 동무는 미국놈들이 원자탄을 가지고있으니까 우리가 싸워 이기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닌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일부 학생들속에서는 미국놈들이 원자탄을 쓰면 어찌하랴 하고 생각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원자탄이나 쓴다고 하여 전쟁에서 이기는것이 아니다, 미국놈들은 원자탄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미국놈들이 원자탄을 쓰지 못하는것은 우리에게 미국놈들이 가지고있는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있기때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에게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있다니？！…)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저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곁에 바싹 다가들며 그 무기는 어떤 무기인가고, 어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무기는 바로 아버지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확신에 넘쳐 이 세상에는 단합된 인민의 힘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이 단합된 힘을 보지 못하고 원자탄을 쓴다면 놈들은 더 빨리 망하고말것이라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야! 세상에서 제일 센 단결의 무기！》

학생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저마다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신심에 넘쳐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생들에게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꺾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 21 과
아버님께 드리신 편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에 깊이 마음쓰시였습니다. 여느때도 그러하였지만 미제승냥이놈들이 전선과 후방에 마구 폭탄을 떨군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면 더더욱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축복하군 하시였습니다.

그러던 5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마을을 마구 폭격한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에 대한 소식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두주먹을 불끈 쥐였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방송을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근심에 잠긴 표정을 지으시고 좀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습니다.

언제나 동무들을 기쁘게 해주시려 늘 밝은 웃음만을 짓고계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두운 그늘을 짓

고계시자 웬일인가 하여 학생들은 대원수님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묻는듯 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는 적들의 폭격만행에 대한 보도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장군님의 안녕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전쟁승리를 위하여 전선과 후방을 늘 현지지도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신변이 걱정된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안녕하셔야 전쟁의 승리도 있고 우리 인민의 행복도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저멀리 남쪽하늘가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6월 1일 밤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안녕을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담으시여 장군님께 올리는 편지를 쓰시였습니다.

그런데 한자한자 정성다해 쓰신 편지에 그만 자그마한 잉크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시 깨끗한 종이를 꺼내놓으시고 한자한자 정히 옮겨쓰기 시작하시였습니다.

《항상 그리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양코배기를 때려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으로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릴것은 아버지는 개인의 몸인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수령입니다.

… 아버지께서 건강에 류의하고 항공에 주의하고 항상 몸조심함은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이며 또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많이 노력하실것을 멀리서 축복합니다.

1953년 6월 1일

김정일 올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 쓰신 편지를 깨끗한 봉투속에 넣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을 때는 밤 12시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전화의 그 나날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장군님의 안녕만을 생각하시였습니다.

제 22 과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동무들이 앓거나 힘들어하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따뜻이 돌봐주시였습니다.

어느날 마지막수업이 끝날무렵 한 학생은 몸이 오싹오싹 떨려 앉아있기를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3년전부터 이맘때면 도지군 하던 학질(말라리아)병이 또다시 도졌던것입니다.

그 학생은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호실에 들어와 이불을 쓰고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불속에서도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 엉엉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흐느껴울다가는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를 찾다가는 또다시 소리내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퇴할 때 헤여져 소식조차 모르는 어머니가 아무리 찾은들 그의 곁으로 올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어렴풋이 잠들었던 그 학생은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마에 닿는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근심에 싸인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며 손목을 꼭 잡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음식그릇을 가져다놓으시며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시 몇술 뜨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피곤도 잊으시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서 그의 이마에 얹어주시며 그의 곁에서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였습니다.

그 다음날 밤 동무들이 다 잠들고 선생님이 돌아간 다음에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학생때문에 잠들지

못하시였습니다.

밤새워 그를 간호해주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가 정신을 좀 차리자 머리맡에 앉으시여 그의 입에 한술두술 밥을 떠넣어주시였습니다.

그는 뜨거운 그 마음에 끌리여 밥을 받아 넘겼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어머니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아파할 때면 늘 머리맡에 앉아 밤새워 돌봐주던 어머니…

정녕 **김정일**대원수님의 모습은 못 잊을 어머니의 모습이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뜨거운 정성에 끝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습니다.

얼마후 위대한 대원수님의 손을 꼭 잡고 모든 아픔을 잊으며 깊이 잠들었던 그 학생은 다음날 아침 선생님으로부터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앓고있는 학생때문에 걱정하며 잠들었다가 날이 밝을무렵 그 학생의 호실에 들어선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축축히 젖은 수건을 그의 이마에 올려놓고 그것을 꼭 쥐신채 이불도 덮지 않으시고 주무시고계셨던것입니다.

혹시 잠결에 이불을 차던지셨는가 하여 살펴보니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덮으셔야 할 이불이 앓는 학생에게 덮어져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속에 그 학생은 해마다 앓군 하던 학질병을 깨끗이 고치고 건강한 몸으로 공부하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동무들을 위하여 바치신 정성은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성이였습니다.

그 정성속에 학원학생들은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제 23 과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도록

무더운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갑자기 우뢰가 울고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한참이나 퍼붓던 소나기가 멎자 해가 나면서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끼였습니다.

《무지개가 섰다！》

《야！》

학생들의 마음은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싶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무지개끝이 어디에 내렸을가 하고 제나름대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무지개구경을 하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무지개가 어떻게 생

기는지 아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는 학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비가 오다가 해가 나면 무지개가 생기는가고 또 물으시였습니다.

그래도 누구하나 똑똑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 똑똑히 모르니까 무지개끝이 어디에 닿았을가 하고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지개가 어떻게 되여 생기는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빛에는 일곱가지색이 있는데 여느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가 온 다음에는 해빛이 공기속에 남아있는 물방울들을 통과하면서 일곱가지색을 다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머리를 기웃거리는 학생들에게 아직 잘 모르겠으면 수도가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와 하고 수도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저저마다 물을 한모금 입안에 물었다가 내뿜었습니다.

그때마다 언뜻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지개를 본 학생들은 손벽을 치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은 두번이나 물을 뿜었지만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와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벼이 웃으시면서 그의 몸이 해를 등지게 돌려주시고 이제 한번 더 해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푸—》 하고 물을 뿜으니 정말 아름다운 7색무지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학생은 너무도 기뻐 깡충깡충 뛰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다가 학생들에게 자연현상이란 다 그 리치가 있는것이다, 그 리치를 알면 어려울것이 없고 세상에 모를것이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학습하든지 그 리치를 따져가며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정말 신기한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것을 가르쳐주실것을 **김정일**대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하늘이 왜 푸르게 보이는가, 비는 어떻게 되여 오는가, 지구가 둥글다는것은 어떻게 아는가, 지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왜 사람도 집도 넘어지지 않는가 등 동무들이 알고싶어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생들모두가 하나를 알아도 그 리치를 따져가며 똑똑히 알고 넘어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24 과
점심밥을 함께 드시며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 첫 새 학년도가 시작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돌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삼석인민학교(당시)에 편입하시여 공부를 시작하시였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방금 끝난 뒤여서 인민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공부하시는 학급에서는 오후에 나무심으러 가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까운 동무들도 모두 점심밥을 싸가지고 오게 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떠들썩거리며 즐거운 기분으로 밥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슬그머니 교실에서 나가는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웬일인가 하여 동무들에게 물어보시였으나 누구도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풀어놓으시였던 점심보자기를 싸드시고 그 동무들을 찾아 밖으로 나가시였습니다.

밤나무아래 모여앉았던 동무들은 엉거주춤 일어서며 어쩔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자리에 눌러앉히시며 《자, 어서들 먹고 나무를 심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자신의 밥곽을 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밥곽에는 조밥에 고추장과 무우나물이 있을뿐이였습니다.

동무들은 그제야 어줍게 웃으며 점심그릇을 펼쳐놓았습니다. 거의나 나물밥, 강냉이밥들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맛있는것을 싸가지고왔으니 그랬구나.》라고 하시며 자신의 점심밥을 덜어주시고 동무들의 나물밥을 허물없이 드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스스럼없이 대해주시니 아이들은 활기를 띠고 한집안식구처럼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밝은 웃음을 띠고계셨으나 가슴은 몹시 아프시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형편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는 동무들의 모습이 가슴에 맺히시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거의나 전사자, 피살자, 인민군후방가족의 아들딸들이였습니다.

점심식사를 끝낸 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느 집 아이들보다도 활개치며 무럭무럭 자라서 나라의 기둥

이 되기를 바라고계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있는것 같다, 전쟁을 방금 겪고 나라형편이 어려워서 나물밥을 먹는데 무엇이 부끄러운가, 나물밥을 먹으면서도 최우등으로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 나물밥이라고 부끄러워할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이처럼 어렵게 만든 미국놈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거듭 타일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집안형편이 어려운 동무들과 나물밥도 함께 드시며 그들의 마음에 그늘이 질세라 따뜻이 돌봐주시였습니다.

제 25 과
치워진 돌무지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하루공부를 끝내시고 동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계시였습니다.

고개길을 넘어 얼마간 내려오는데 길가에서 아래반의 나어린 학생들이 뽈차기를 하고있었습니다.

길 한복판에 돌무지로 꼴문을 만들어놓고 편을 나누어 신바람이 나서 공을 차고있는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며 길복판에 돌들을 무져놓는 주인공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오늘에야 만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공을 차는 학생들을 가까이로 부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차기가 재미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들은 공차기가 신바람이 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시금 물으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큰길에서 뽈을 차니? 게다가 돌무지로 꼴문까지 만들어놓고…》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느껴졌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어린 학생들을 정답게 바라보시며 조용히 타이르시였습니다.

큰길에서 놀다가는 자동차에 다칠수도 있고 또 길한복판에 돌을 무져놓으면 차도 마음대로 다닐수 없게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더우기 이 길은 아버지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장군님께서 가시는 바쁘신 길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나라 혁명과 발전이 떠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잠시 큰길을 살펴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뜨거운 목소리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

여 애쓰시는 장군님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나어린 학생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저마다 다시는 길가에서 뽈을 차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잘못을 알았으면 되였다고 하시면서 자동차들이 오기 전에 돌들을 치우자고 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돌꼴문을 헐어 길옆의 도랑에 던져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돌들을 마구 버리지 말고 자동차바퀴에 패워진 자리를 메꾸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몸소 돌을 들어다가 홈타기들에 박아넣으시고 흙으로 매끈하게 다져놓으시였습니다.

학생들도 성수가 나서 길우의 돌들로 패워진 곳을 메꾸어나갔습니다.

그후부터 나어린 학생들은 다시는 길가에서 공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우에 자그마한 돌멩이가 놓여있는것을 보아도 꼭꼭 치우군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김일성**장군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안녕만을 바라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26 과
나무를 사랑하도록

분단위원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발기에 따라 마을의 전사자, 피살자가족들에게 땔나무를 해다주는 사업을 조직하였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삼석의 한 마을 뒤산으로 오르시였습니다.

산에 오른 학생들은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소년반별로 조를 무어 나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도끼를 드시고 전쟁때 적비행기의 폭격에 허리부러진 꽤 큰 소나무의 밑둥을 찍고계시였습니다. 한참이나 도끼질을 해서야 소나무를 찍어내시였습니다.

얼굴에 방울방울 내돋은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시며 또 찍을만 한 나무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곳에 눈길을 모으시며 놀라시였습니다. 몇명의 학생들이 몰켜서서 생나무를 찍고있었던것입니다.

급히 그리로 달려가시였으나 나무는 벌써 다 찍어넘어지고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흐뭇하여 나딩구는 나무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넘어진 생나무를 가슴아프게 내려다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생나무를 이렇게 막 찍으면 어떻게 하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채 깨닫지 못한 한 학생이 생나무도 이틀만 말리우면 불이 잘 붙으니 걱정할것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불이 잘 붙고 안 붙는데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다. 싱싱하게 자라는 생나무를 찍으면 그만큼 산에 나무가 없어지는것이 큰 일이다. 나무 한대라도 더 많이 심어야겠는데 자꾸 찍으면 이 산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니.》

순간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가셔졌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하기 전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나무를 찍지 말고 죽은 나무만 골라찍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생나무가 잘 타지 않을가봐 그러시는것이라고만 생각하였던것입니다.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생나무를 찍는것이 산을 벌거벗기는 일이라는것을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넓은 산의 많고많은 나무들가운데서 생나무 몇대 찍는다고 하여 크게 자리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마을의 전사자가족들에게 나무를 해다주자면 많은 나무를 해야 할텐데 생나무도 좀 찍

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생나무를 찍는것이 손쉬울수 있다. 그러나 좀 품이 들더라도 죽은 나무만 찍자. 폭격에 상한 나무들도 찍고 밑둥만 남은것들도 파내고 삭정이도 줏고 하면 나무를 얼마든지 많이 할수 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 조국땅을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시려고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시였다고 하시였습니다.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였으나 마디마디 학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무 한그루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정말 생각 못했어. 다시는 절대로 생나무를 찍지 않을테야.》

생나무를 찍자고 조르던 학생이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깨달았으면 되였다고 하시며 모두에게 기운을 내여 부쩍 일손을 다그쳐 해가 지기 전에 한단씩 하자고 힘있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도록 동무들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 27 과
책보자기를 드시고

새해 겨울방학도 거의 끝나가고있었습니다.

이 방학이 끝나 2월 1일이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평양제4인민학교(당시)에 첫 등교를 하시게 되여있었습니다.

개학을 며칠 앞두고 **김정일**대원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생활하는 한 일군의 가슴은 설레였습니다.

그 일군은 곧 시장에 나가 학용품을 사며 김정숙어머님께서 계신다면 사랑하는 아드님의 개학준비를 얼마나 깐깐히 해주시랴 하는 생각으로 어느 한가지라도 빠질세라 마음을 썼습니다.

개학 전날이 되자 그 일군은 갖가지 학용품이 빼곡이 차있는 가방을 들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책을 읽고계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반갑게 맞아주시였습니다.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가방을 올리며 혹시 부족한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고나서 벌써 다 준비했는데 괜히 수고를 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책상우에 단정히 놓여있는 보자기를 헤치시였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수수한 학습장들과 연필갑, 자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학용품들이 차곡차곡 갖추어져있었습니다.

(내가 그만 늦었구나. 어머님께서 안 계시니 혼자서 가방도 없이 보자기에…)

일군은 목메인 소리로 좀 더 미리 준비해드리지 못하여 미안하게 되였다고 거듭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시고 그 일군에게 사업이 바쁘겠는데 이런 걱정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였습니다.

일군은 보자기에 싸놓은 학용품들을 하나하나 가방곁에 놓으면서 학용품들을 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일군을 말리시면서 자신께서는 보자기에 학용품을 싸가지고 다니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은 놀라며 좋은 가방을 두고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다니시겠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방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가방을 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난 가방보다 보자기에 가지고다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일군은 몹시 서운해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직한 목소리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보자기를 들고 학교에 다니고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가방을 들고다니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은 수수한 보자기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애들은 가방이 없으니 할수없이 보자기를 들고다니지만 이미 마련되여있는 가방이야 왜 안 들고다니시겠는가고 또다시 청을 드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더욱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가방을 들면 다른 동무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일군은 그만 가슴이 뜨거워올랐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동무들과 꼭같이 생활하시는 소박한 품성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28 과
하루의 첫 일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평양제4인민학교에서 공부하시던 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한 학생이 여느날보다 일찌기 교실에 들어서니 언제 나오셨는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벌써 교실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대원수님께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남보다 먼저 나와 교실청소를 하려고 하였는데 또 이렇게 한발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코를 떼웠단 말이지.》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크게 웃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 교실청소는 다 해놓았으니 손댈것이 없다고, 그러니 함께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더 밝고 깨끗하게 모시는 일을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창턱으로 가시여 새로 준비해오신 나무함을 들고오시였습니다.

학생은 두눈을 깜박이며 나무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나무함뚜껑을 여시였습니다.

그안에는 보드라운 닭털에 물감을 들여 만든 자그마한 먼지털개와 빨간 비로도천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닦개 그리고 흰 가제천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학생을 바라보시며 애를 쓰느라고 했지만 녀동무만큼 재간이 없어 잘 만들지 못했다고, 이제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장군님의 초상화를 더 밝고 깨끗하게 모시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초상화를 깨끗이 닦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실뒤쪽으로 가시여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바라보시며 만족하신듯 《환하구나.》 하고 기쁨에 겨워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밝게 웃으시는 모습은 해님처럼 교실안을 더 밝게 비쳐주는듯싶었습니다.

학생은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르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부터는 이 나무함을 교실에 보관하고 장군님의 초상화를 더 잘 모시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밝고 정중하게 잘 모시는것은 더없이 영예로운 일이라고, 우리의 하루일과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한없이 깊은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루일과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를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는 충실성의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제 29 과
난로당번이 되시여

찬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청소당번인 한 학생은 아침일찍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교실은 여느때없이 훈훈하였습니다.

그래서 난로앞으로 다가가 불통문을 열어보니 시퍼런 불길이 이글거렸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선생님이 나와 난로불을 본것이라고 생각한 학생은 교실청소를 하려고 팔을 걷고나섰습니다.

그런데 물바께쯔도 없고 걸레도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교실을 살펴보니 누군가가 벌써 교실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뒤였습니다.

(오늘은 분명 내가 청소당번인데 누가 벌써…)

이때 동무들이 한명 두명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야, 교실이 뜨끈뜨끈하구나.》

《오늘 청소당번은 5점이다. 교실이 막 알른알른하구나.》

동무들은 청소당번학생을 추어올렸습니다.

그 학생은 당황하여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영문을 몰라 두눈을 깜박거렸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손에는 석탄바께쯔를, 다른 손에는 물바께쯔를 드시고 교실 뒤문으로 들어서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난로불도 피워놓고 교실청소도 다 해놓으셨던것입니다.

학생들은 급히 **김정일**대원수님께로 달려가 석탄바께쯔와 물바께쯔를 받아내렸습니다. 청소당번학생은 얼굴을 붉히며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실청소야 누구나 다 해야 하는데 뭘 그러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오늘 아침에 난로불을 좀 보았는데 교실을 덥히는것쯤은 그리 힘들지 않다고 하시면서 선생님대신 우리자체로 난로불을 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적극 찬성해나섰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선생님께 제기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로 학생들의 난로당번표가 짜졌습니다.

그런데 난로당번표에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존함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대원수님을 어떻게 난로당번까지 서시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던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에게 《나도 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선생님의 심정은 고맙지만 자신께서만 혼자 난로당번에 빠지면 되겠는가고, 자신께서도 꼭 난로당번을 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학생들이 난로당번은 자기들이 서겠으니 그 일만은 그만두실것을 **김정일**대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정다운 시선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도 동무들과 꼭같은 학생이라고, 그런데 누구는 난로당번을 서고 누구는 빠져서야 되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려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일은 어려서부터 해버릇해야 앞으로 커서 아무 일이나 막힘없이 척척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을 바라보시며 다시금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도 난로당번을 서겠습니다. 난로당번계획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여 난로당번계획은 다시 세워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였습니다.

제 30 과
첫째가 학습

어느날 산수시간에 3명의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아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크게 느끼지 않았으며 다른 동무들도 흔히 있을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동무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하루수업이 끝나자 수업정형을 간단히 총화하시였습니다.

이어 오후에 노래보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무슨 노래를 배워주려고 그러실가?…)

동무들은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약속대로 새 노래를 배우겠다고 하시며 칠판에 다가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활달한 필체로 노래제목을 쓰시였습니다.

《첫째가 학습》

그러시고는 가사를 한줄한줄 내려쓰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마당에서 뽈을 차자고
신이 나서 나오라고 졸라대지요
뽈차는건 나도나도 싫지 않지만
숙제문제 다하고야 놀러갈래요
그래그래 참 정말 네 말이 옳아
우리들은 학습이 첫째랍니다

동무들은 약속이나 한듯 가사를 따라읽었습니다.

《노래가 참 좋구나.》

《우리 마음에 꼭 드는 노래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노래를 배워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몇번 따라부르지 않고도 제껵 노래를 배우게 되였습니다. 노래가 학생들의 마음에 꼭 맞으면서도 알기 쉽게 되여있어 머리에 속속 새겨들었던것입니다.

노래보급이 끝난 다음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담임선생님과 토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분단모임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모임안건은 《노래 〈첫째가 학습〉과 나》라고 발표하시였습니다.

그제서야 동무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무엇때문에 갑자기 노래보급사업을 조직하시고 분단모임을 여시였

는지 그 깊은 뜻이 가슴에 안겨와 두눈을 슴벅이였습니다.

동무들은 저저마다 앞으로 학습과 생활을 더 잘할 결의를 굳게굳게 다졌습니다.

토론이 끝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토론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이 지난날의 결함을 진심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진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한번 다진 결의는 꼭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노래제목과 가사에서 보여주는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는 학습을 잘하는것입니다.》

동무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속에 새겨넣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생들속에 학습이 첫째가는 임무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시였습니다.

제 31 과
10전과 량심

4월초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한 학생은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주인이 목욕값을 받고 남는 돈을 주면서 그만 계산을 잘못하여 10전을 더 주었습니다.

학생은 자기가 10전을 더 받았다는것을 알면서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서버렸습니다.

학교에 돌아온 학생은 동무들에게 그 일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린색한 목욕탕주인이 이번에만은 아차 실수하여 골탕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학생을 찾으시였습니다.

학생은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 몰라 두눈을 깜빡거리며 서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동무가 목욕탕주인한테서 거스름으로 10전을 더 받아가지고 온것이 사실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학생은 어정쩡하여 사실이라고 대답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그 학생을 눈여겨보시다가 이제 목욕탕에 가서 더 받은 돈을 돌려주고 오라고 이르시였습니다.

학생은 입술만 감빨며 선뜻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돈을 가져다주는것이 거북하여 그러는가고 부드럽게 물으시였습니다.

학생은 공연히 한발로 교실바닥을 허비적거리며 사실 목욕탕주인이 형편없는 깍쟁이라고, 그래서 돈을 다시 가져다주기가 싫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하지만 그 돈이야 그 사람의것이 아닌가고, 주인이 아무리 린색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돈을 함부로 가지면 안된다고 조용히 타이르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학생은 목욕탕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교실에서 그 학생을 기다리고계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옆에 앉혀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돈을 돌려주고 오니 마음이 어떤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학생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사실 돈을 더 받았을 때에는 린색한 주인을 골려주게 되였다는 즐거움과 함께 저도 모를 불안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머리를 끄덕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퍽 부드러운 어조로 그것 보라, 동무는 그 돈을 가지는것이 나쁘다는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였다, 물론 10전이 큰 돈은 아니며 또 내가 목욕탕주인을 생각해서 가져다주라고 한것은 아니다, 리유는 어떻든 동무가 그 돈을 가지게 되면 보잘것 없는 10전때문에 동무는 자기의 량심을 더럽히는것으로 된다, 량심을 속이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량심에 꺼리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학생은 심한 가책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앞으로는 량심에 조금도 꺼리끼는 일이 없이 깨끗이 살아가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생

들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32 과
학교복구건설장에서

온 나라가 미국놈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마을들을 복구하기 위하여 부글부글 끓고있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하루수업을 끝낸 학생들은 학교복구건설을 다그치고있는 건설자들을 도와 벽돌운반작업을 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작업에 참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남보다 더 많은 벽돌을 지시고 거의 뛰여다니다싶이 하시며 높은 발판을 오르내리시였습니다.

그날은 벽돌이 몹시 딸려돌아갔습니다. 그러다나니 학생들은 오래도록 휴식 한번 못하고 벽돌을 운반하여야 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땀에 흠뻑 젖으시였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린 보람이 있어 벽돌축조공들곁에는 높은 벽돌무지가 솟아났습니다.

한 축조공이 이만한 벽돌이면 하루종일 쓰고도 남겠다고 하며 정말 일을 잘한다고 학생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때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 학생들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축조공은 선생님앞에서 학생들에 대한 자랑을 한껏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대원수님을 가리키며 저 학생은 남들보다 곱절이나 넘게 벽돌을 지고 맨앞장에서 뛰여다닌다고, 정말 일을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처음 대상하는 축조공이라 아직 **김정일**대원수님이 누구이시라는것을 모르고있었던것입니다.

지도원선생님이 축조공에게 낮은 목소리로 몇마디 귀띔했습니다.

축조공은 깜짝 놀라 두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수령님의 자제분이 이런 벽돌짐을？！…》

축조공은 두눈을 슴벅이며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

렀습니다.

지도원선생님은 **김정일**대원수님께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벽돌운반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일없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땀을 들이는 학생들을 정겹게 둘러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땀은 저혼자 흘린것이 아니라고, 동무들도 저렇게 땀을 흘리지 않았는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학교를 복구하는 일인데 어떻게 쉬운 일만 골라할수 있겠는가고, 자신께서도 동무들과 함께 벽돌을 운반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말씀에 선생님도 축조공도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휴식을 끝낸 학생들은 또다시 신바람을 일쿠며 벽돌을 운반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벽돌을 지고 학생들의 앞장에서 달리시였습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

게 오늘 우리는 정말 일을 많이 했다, 미국놈들의 폭격에 무너졌던 학교벽체가 또 하나 솟아올랐다, 저속에는 적으나마 우리의 땀도 스며있다, 이제 학교복구가 완공되여 해빛밝은 교실에서 공부할 때면 오늘 우리가 땀을 흘린 보람을 더 깊이 느끼게 될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여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우리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은 소년단시절부터 로동을 사랑하는 품성을 키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어려서부터 로동을 사랑해나갈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몸소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시여 학생들이 로동을 사랑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어린시절
(소학교 제4학년용)
제3판

집 필	부교수 리정호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신호철	콤퓨터편성	정봉순
장 정	강철훈	교 정	리유미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8(2009)년 9월 4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2월 15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 25일

교-11-보-244-1 값 5원